

폴리아의 성과 대성당-마테라



마테라는 암벽 가장자리에 세워진 역사 깊은 도시로, 이곳의 동굴들은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기거한 장소이기도 하다. 마테라에는 18세기에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졌는데, 높은 고지에 세워져 있는 튼튼한 트라몬타노 성 Castello Tramontano과 몇몇 아름다운 성당들이 이에 포함된다.

1. 비토리아 베네토 광장(Piazza Vittorio Veneto)
→ 마테라의 도청 Prefettura 건물이 있는 도시 중심지
2. 움베르토 1세 길(corso Umberto I)
→ 바로크 양식의 산 프란체스코(S. Francesco) 성당
3. 리돌라 길(via Ridola)
→ 훌륭한 고고학, 회화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
4. 산 비아조 길(S. Biagio)
→ 로마네스크 양식의 작은 성당인 산 도메니코
5. 카사레라 길
→ 산 조반니 바티스타 성당, 산타고스티노 성당
6. 아도시오 길(via d'Addosio)
→ 산 피에트로 카베오소 성당, 산타 마리아 데 이드리스 성당, 로마네스크 양식의 두오모 성당
7. 브라다노 계곡(valle del Bradano)
→ 기원전 743년에 세워진 도시, 아폴로 리치오 신전, 도릭 양식의 기둥이 있는 체레레의 신전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효과적인 여정

마나 그레키아의 5대 문명

1. 팔레르모

그 옛날 페니키아인들의 근거지였던 팔레르모는 기원전 253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다. 야만족들의 침입 이후 이 도시는 비잔틴인들의 지배를 받았고, 이어 아랍인, 노르만인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러한 지배기간 내내 팔레르모는 커다란 번성기를 누리는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 특히 팔레르모의 최대 전성기는 슈바벤 출신의 페데리코 2세의 통치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어 앙주 가, 아라곤 가, 부르봉 가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1860년 이후에 나폴리 왕국과 함께 이탈리아에 속하게 되었다.



2. 아그리젠토

기원전 582년에 설립된 아그리젠토는 데로네의 독재 치하에서 번영을 누렸으나, 카르타고인들에 의해 멸망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10년 로마인들에 의해 점령되어 재건되었다. 아그리젠토는 위엄 있고 커다란, 언덕 전체에 세워진 도시(현재 아그리젠토의 시내)로, 이 언덕은 신전들의 계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12km에 달하는 경계 벽에 둘러싸여 있다.



3. 시라쿠사

기원전 8세기에 자그마한 오르티지아 섬에 세워진 시라쿠사는 수세기 동안 그리스 서부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막강한 그리스 도시였다. 시라쿠사는 젤로네, 제로네, 디오니시오, 아가토클레, 제로네 2세 등의 독재 군주 밑에서 본토로 점차 세력을 확장시켜나갔다. 그리스 도시인 시라쿠사가 멸망한 것은 로마인들의 점령에 의해서였고, 중세시대에는 거주지역이 다시 섬 안으로 한정되었다가 슈바벤 출신과 아라곤 가문 출신의 왕들의 지배하에서 다시 그 중요성을 되찾게 된다. 1963년에 일어난 지진에 의해 황폐화되었던 이 도시의 일부는 현재의 바로크 스타일로 재건되었다.



4. 카타니아

에트나 Etna 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카타니아는 기원전 729년 그리스인들에 의해 설립된 도시이다. 263년에는 로마의 식민도시가 되었고 노르만 인들과 슈바벤 인, 부르봉 왕가의 통치기간 중에는 매우 중요한 중심도시였다.



5. 타오르미나와 아치레알레

타오르미나는 이태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에트나 산의 눈 덮인 경사와 바다가 바다를 보이는 단구에 위치해있다. 지금 이 도시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중세 말기 무렵에 지어진 것들로 바디아 베키아 탑, 두오모 성당, 팔라초 산토 스테파노, 총안이 있는 팔라초 코르바이아와 그 옆에 서있는 16세기의 산타 카테리나 성당 등이 그 예이다.

아치레알레는 두 번의 지진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가 현재의 바로크 양식으로 다시 지어졌다.



6. 메시나

1908년의 지진과 1943년에 있었던 폭격으로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되었던 메시나의 중요 유적들은 두 번에 걸쳐 재건된 것들이

다. 두오모는 노르만 식 구조로 지어진 건물이며, 산티 안토니오 데 카타니 성당은 로마네스크 스타일과 아랍노르만 스타일이 우아하게 조화되어 있다. 산 그레고리오성당에 자리한 중요한 국립 박물관에는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작품인 폴립티크와 그 제자들의 작품들, 카라바조의 훌륭한 유화 그림 두 점과 마티아 프레티의 작품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옛 조각들 중에는 라우라나의 조각도 포함되어 소장되어 있다.



7. 로크리와 레조칼라브리아

로크리는 기원 전 7세기에 세워졌다가 12세기에 아랍인들에 의해 멸망한 고대 그리스 식민지였다. 그리스 시대에 세워진 성벽의 흔적과 신전, 그리스 시대 극장 유적들은 로크리의 신시가지의 뼈대를 보여준다.

레조 칼라브리아는 칼키스의 식민지 주민들에 의해 750년에 세워졌다. 이것은 마그나 그라이키아의 매우 중요한 도시들 중 하나였다. 이곳의 국립박물관에는 선사시대부터 마그나 그라이키아 시대의 고대 유적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으며, 로크리 신전과 디오스쿠로이 신전의 유적들도 볼 수 있다.



8. 크로토네

해안 갑 위에 위치한 크로토네는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고대에 이름을 날리던 도시이다. 아카이아인들에 의해 설립된 이 도시는 이후 코린트의 식민지(기원전 8세기)가 되었다가 로마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이스 도시의 흔적으로는 성벽과 고대 항구의 유적이 남아있다. 이곳에는 16세기에 지어진 두오모 성당과 역시 16세기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이 있는데, 현대 이 성 내부는 시립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치 있는 고고학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



9. 코센차

코센차는 로마시대 이전에 세워진 고대 도시로 크라티강과 부센토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전설에 따르면, 고트 족의 알라리코왕이 그의 보물과 함께 이 지역에 묻혀있다고 한다. 산 도미니코 성당, 대성당, 성, 산 프란체스코 성당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10. 살레르노와 아말피

분명 에트루리아인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살레르노는 이 후 로마의 식민 도시가 되었고, 이어서 비잔틴, 롬고바르드 그리고 노르만의 속국이 되었다. 살레르노의 웅장한 두오모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다.

아말피는 한때 잘나가는 해상 국가였다는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다. 간결한 고딕양식의 아치 천장이 있는 조선소와 두오모 성당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11. 피에스툼, 파라테아 그리고 파올라

파에스툼은 한때 그리스인들이 세운 포세이도니아의 도시였다. 이곳에는 가장 중요한 도리스 문명 시대의 유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파에스툼으로부터 124km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사프리가 있고, 이곳에서 다시 18km를 가면 매혹적인 마라테아에 이르게 된다.

파올라에는 작은 비잔틴 양식의 성당이 있고, 많은 15세기 유물들이 이 도시를 장식하고 있다.



대수도원과 성(로마/나폴리)

1. 가에타

로마 시대에는 중요한 도시였다가, 이어 웅장한 롬고바르도 성이 돋보이는 중세시대의 건물들에서 보여지듯 롬고바르도 공작령이었다. 이 성은 이후 스와비아인들 손에 들어갔다 후에 다시 앙주 가에게 넘어간다. 가에타에서 돋보이는 또 하나의 건물이 바로 두 오모 성당(12세기)으로, 이 성당에는 13세기 조각들이 가득하며, 노르만 스타일의 종탑이 있다.

아름다운 해안가 길을 따라 몬테 치르체오로 가면 동굴들이 많은데, 전설에 따르면 이 동굴들이 율리시스가 마녀 키르케를 만난 장소라고 한다.



2. 나폴리



나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매력을 지닌 자연환경을 가진 장소 중 하나로 꼽힌다. 항구와 웅장한 산텔모 요새, 카르투지오의 산 마르티노 수도원, 무니치피오 광장의 멋진 전망이 있다.

3. 티볼리



한때 고대 로마의 휴양지였던 티볼리는 캄파냐Campagna 지방이 내려다보이는 석회암으로 된 언덕 중턱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다. 티볼리의 폭포는 수세기 동안 많은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다.

4. 로마



이탈리아가 태어난 곳

1. 우르비노



두 개의 언덕 위에 평행 사변형의 모양으로 세워진 우르비노는 이 도시의 영주였던 페데리코 디 몬테펠트로 시절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2. 굽비오



굽비오는 중세시대의 환경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역사가 아주 오랜 도시이다.

3. 스폴레토



위풍당당한 도시 스폴레토는 에트루리아의 도시였다. 이후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중세 초기에는 아주 유력한 롬고바르도 출신의 공작령이 이곳에 자리하기도 했다.

4. 페스카라



현대적인 모습을 지닌 페스카라에는 10.5km에 달하는 해변 산책로와 모래사장과 아름다운 소나무 밭, 그리고 수 많은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다. 페스카라는 중부 아드리아 해에서 가장 대중적인 리조트로 유명하다.

5. 아스콜리 피체노



철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아스콜리 피체노에는 로마네스크 양식과 중세 시대의 유적들이 풍부하다. 이 아름다운 도시의 방문은 분명 방문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진정한 예술적 발견으로 남을 수 없을 것임에 틀림없다.

6. 아퀼라



7. 앙코나



8. 마체라타



포텐차와 키엔티 계곡들 사이에 위치한 쾌적한 언덕 위에 자리한 고대 도시이다. 이 도시의 가장 특징적인 건축물이 바로 1829년에 지어진 스포츠 운동장인 네오클래식 양식의 스페리스테리오로, 마르케 지방에서 아주 대중적이었던 공놀이를 위해 지어진 것이다.

에트루리아인들의 땅

1. 피렌체



피렌체처럼 자연이 한 도시에 이토록 훌륭한 배경을 배치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2. 볼테라



볼테라는 협곡으로 가파른 언덕들 위에 펼쳐져 있는 금지를 지닌 도시이다. 사실이 도시는 펠라드리라는 이름을 가진 가장 막강한 에트루리아 도시국가들 중 하나였으며, 기원전 3세기에 로마의 도시가 되었다. 언덕 가장자리를 따라 펼쳐진 협곡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추는 에트루리아 시대의 성벽들이 세워진 목적은 사실 옛날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적들의 포위 동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샘물을 도시 내에 가두기 위한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3. 키우시



키우시는 음회양으로 된 고원 위에 세워진 도시이다. 오늘날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이 도시의 좁은 길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 도시가 그 옛날 거대한 권력을 지녔으며, 아마도 에트루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는 사실을 거의 믿기 힘들어할 것이다. 키우시의 왕 포르센나가 타르퀴니 일 수페르보르 로마의 왕좌 위에 다시 올리기를 희망했을 때, 에트루리아인들은 로마를 향해 진군하여 로마를 포위하고 부분적으로 로마를 점령하기도 했었다.

4. 비테르보



비테르보의 중세적인 분위기를 지닌, 아름다운 교회들과 중요한 유적, 건물들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도시이다. 무엇보다 비테르보에서 가장 뛰어난 기념물은 8세기 전 그 대로 변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13세기의 마을 전체로, 이것은 손상을 입지 않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완전한 중세 구역으로 콘트라다 디 산 펠레그리노 주변에 위치한다.

5. 오르비에토



오르비에토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시들 중 하나이다.

6. 코르토나



코르토나는 아주 옛날 움브리아의 성이었는데, 이후 에트루리아의 도시가 되었다가 마침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도시이다.

로마네스크에서 르네상스까지

1. 아레조



아레조는 에트루리아의 도시였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에 현명하게 로마와 연합함으로써 다른 인접 도시들에게 일어났던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아레조는 동요된 중세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에 현저한 예술적 개화기를 맞이하는데, 무엇보다 이 곳은 페트라르카와 조르조 바사리가 태어난 곳이다.

2. 아씨시



아씨시는 수바지오 산의 지맥 위에 형성된 역사 깊은 우아한 도시이다.

3. 피사



피사는 전통적인 양식과 동양적인 양식을 적절히 융합한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방식을 발전시켰다.

4. 시에나



토스카나 지방에 위치한 도시들 중 그 아름다움에 있어 피렌체 다음가는 시에나는 세 개의 완만한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다. 환상을 불러내고 신화적인 이 도시는 가장 순수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에나는 처음에는 에트루리아의 도시였다가 로마의 도시가 되었고, 잔혹한 싸움, 전쟁, 전염병 그리고 타국의 침입으로 괴로운 삶을 보냈던 중세 코먼이었으며, 이 후 메디치 가문의 지배하에 들어간 바 있다.

5. 라벤나



라벤나는 서로마제국의 옛 수도였다가 테오도르 황제가 세운 고트족의 왕국이 된 후, 비잔티움에 속했다 끝내 쇠퇴한 도시였다. 그 후 아주 짧은 베니스의 지배 시절에 잠시 꽃을 피웠다가 교황령에 속해지면서부터 다시 쇠퇴의 길을 걷다가, 오늘날에 와서야 새로운 삶을 되찾은 도시이다. 라벤나는 그 성격이나 동질성이라는 측면에 있어 매우 인상적인 예술과 문화의 흔적들을 보존하고 있다. 중세 초기부터 거의 손덜지 않은 상태로 우리 시대까지 살아남은 멋진 유물들이 이탈리아 영토 위에서 꽃피웠던 비잔틴 예술의 영광을 우리시대까지 전승되었다.

6. 페루지아



테베레 계곡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세워진 에트루리아의 중요한 도시였던 페루지아는 이후 로마의 자치행정도시였다가 중세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그대로의 엄격하면서 위엄 있는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아드리아해와 베네치아의 문명

1. 트리에스테



트리에스테는 선사시대에 세워진 요새화된 마을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식민도시였다. 혼란한 중세시대를 거친 후 이 도시는 1918년까지 베니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세력 다툼의 대상이 되어왔다.

2. 우디네



프리울리지방의 도청 소재지인 우디네는 10세기에 세워진 성 주변으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한 동안 아퀼레이아의 족장의 영토였던 우디네는, 2세기 동안에 걸친 치열한 전쟁 후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우디네는 베네치아의 특색을 띤 알프스 산맥 앞쪽에 위치한 우아한 도시이다.

3. 볼자노



볼자노는 옛스러운 집들과 우뚝 솟은 탑들, 포치, 앞 마당 그리고 알프스 지방 특유의 건축물들이 매력있는 배경을 만들고 있는 아디제Adige 강, 이사르코Isarco 강과 탈베라Talvera 강이 모여있는 도시이다.

4. 트렌토

트렌토는 쾌적한 알프스 산의 도시로, 로마 시대의 경계를 따라 자리잡고 있다. 선사시대 거주지 위에 형성된 트렌토는 로마제국의 도시였다가 이후 롬고바르드 인과 프랑크 족들의 지배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거의 8세기 동안(1027-1796) 주교 군주들의 통치를 받았다. 트렌토는 옛 로마 도시의 라인 위에서 발달한 우아한 알프스 도시이다. 베니스, 오스트리아, 롬바르디아 예술의 경향이 하나로 합해지는 교차로에 세워진 트렌토는 이렇게 다양한 경향들을 안정적이면서 특색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품위 있게 조화시킬 줄 알았다.



포강 유역의 도시와 궁정

1. 베르가모



아주 오래된 골 사람들의 도시였던 베르가모는 로마인, 고트족, 롬바르드족을 거쳐, 코윈 시기가 지난 후에는 비스콘티 가문의 영토였으며, 1428년 자의에 의해 베네치아 공화국에 통합되어 끝까지 공화국의 일부분으로 머물러 있었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오늘날의 알타 베르가모다) 베르가모는 차츰 평원 지역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2. 브레샤



리구리아 영토에 갈리아인들에 의해 세워진 브레샤는 225년에 로마의 영토가 된다. 이후 브레샤는 롬고바르드 공작령이 되었다가 코윈을 거쳐 마지막으로 스칼리제리 가문과 비스콘티 가문의 지배를 받은 후, 15세기가 되어 베니스에 의해 병합된다.

3. 만토바



만토바는 에트루리아 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 로마의 도시였다가, 코윈 시기가 끝난 후 보나폴지 가문의 봉토가 되었고 마침내 곤자가 가문(1328-1707)의 영토가 되었는데, 곤자가 가문은 만토바를 자신을 공국의 휘황찬란한 수도로 삼았다.

4. 베로나



베로나는 이탈리아의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 베로나는 그 옛날 선사시대의 장소였으며, 갈리아인들과 로마인들의 도시였으며, 동고트족, 롬고바르드족, 그리고 프랑크족들의 수도였다가, 코윈시대를 거쳐, 짧은 했지만 행복했던 스칼리제라(1260-1387)가문의 봉토였다가, 마지막으로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된다.

5. 비첸자



베로나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비첸자는 베네치아의 통치 아래에서(1404년부터) 다시 꽃을 피우게 된다. 무엇보다 중세적인 모습이 베로나의 특징이라면, 비첸자는 이 도시가 나온 최대의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남긴 르네상스적인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다.

6. 트레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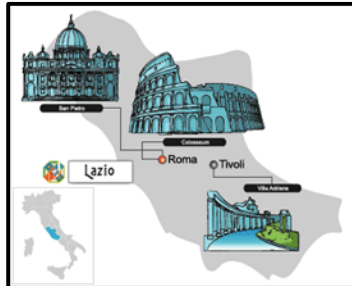
로마의 도시였다가, 코윈을 거쳐 마지막으로 베네치아령에 속했던 트레비조는 그림 같은 운하들과 우아한 건축물들이 있는, 무엇보다 중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이다.

7. 베니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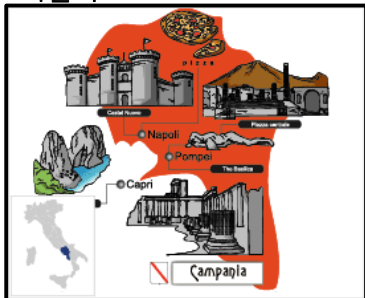
고대와 현대가 함께 숨쉬는 곳,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역사를 증언하는 박물관, 고대 유적과 유물들을 통해 고대의 영웅들을 만난다. 초대 기독교의 증인들이 참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는 곳,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걸작들이 당신을 기다리는 곳, 바로 로마이다.

약 2,750년전에 세워진 로마는 한때는 힘으로, 한 때는 예술로, 한 때는 종교로 세계를 지배하였다.

<바티칸>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안에는 바티칸이라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곳은 전 세계 카톨릭의 총본산이라는 성스러운 의미 외에도 미켈란젤로의 불굴의 명작인 "천지창조"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등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훌륭한 예술작품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이탈리아 미술의 보고이기도 하다.

<나폴리>



캄파니아 지방의 주도인 나폴리는 유럽의 몇 안 되는 고대 도시들 중 하나이다. 그리스인들에 의해 건설된 이 곳은 로마인들에 의해 바뀌고 확장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외국의 침략자들과 제국주의자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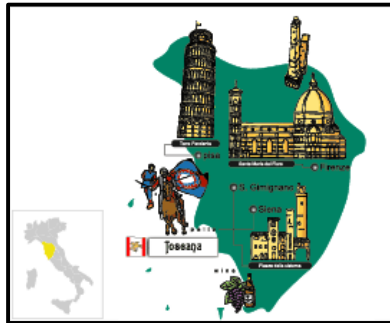
<폼페이>

고대 폼페이의 유적지는 79년 화산 폭발이 있었던 베수비오 산 아래에 있는 드넓은 지역이다. 돌과 화산재에 묻혀 있던 이 도시는 1748년에서야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 당시 모습 그대로의 도시가 드러났다. 모든 건물들은 보존되어 있었고, 간혹 그림과 조각이 가득한 건물도 있었다.

<카프리>

나폴리에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하늘빛의 만 밖으로 불쑥 솟아있는 작고 아름다운 섬 카프리는 나폴리를 찾아온 모든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유혹으로 다가온다. 따사롭고 온화한 카프리의 기후는 나폴리에서 일몰시의 한기를 느끼는 것과는 달리 급격한 기온의 변화없이 한결같다.

<피렌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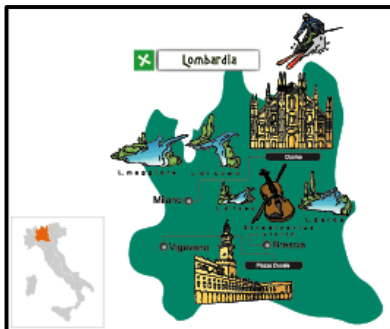


피렌체는 수많은 보물을 간직한 곳으로 예술적, 건축적으로 독특하고 훌륭한 유산이 가득하다. 이 도시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중심지는 피아짜 델 두오모에 있는 산타 마리아 피오레 교회와 피아짜 산 조반니에 있는 세례당이다.

<피사>

아르노 총적토 평야에 있는 피사는 화려한 해안 도시로 12세기의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술 시대를 직접 체험한 곳이다. 바로 두오모와 세례당, 기울어져 유명한 "피사의 사탑"이 세워졌던 시기이다. 피아짜 데이 미라콜리로도 알려진 피아짜 델 두오모에는 아름다운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웅장하고 화려한 네개의 건축물이 있다. 바로 대성당과 세례당, 사탑과 기념 묘지이다.

<밀라노>



화려한 과거가 있고, 무척이나 다이내믹한 현재가 있는 도시, 바로 밀라노이다. 313년 밀라노가 메디오라눔이라는 라틴 이름으로 서부 로마 제국의 수도로 있을 때,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공포, 그리스도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1000년 경부터 커다란 경제 발전이 포(Po) 계곡에 찾아왔고, 이는 밀라노의 정치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황제의 권능에 도전 할만큼 매우 막강하고 활동적인 지방자치체로 변하게 되었다. 실제로 1176년 레가 롬바르다를 이끌고 레나노에 있는 황실 군대를 무너트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번성기가 있었던 덕분에 밀라노에는 훌륭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가득하다.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의 최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동양으로 가는 입구에 있으며, 10세기에 비잔틴 구역으로 독립하였다. 1204년의 십자군 승리로 동양과 긴밀한 무역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부유와 권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유럽인과 터키의 경쟁자에 의해 아주 서서히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지리적으로 베네치아는 강이 흐르는 평지부터 산맥지대인 돌로미테스까지 뻗어 있는 베네토지역과 근접해 있다.

<베로나>

베로나 다채로운 무역 중심지로 베네토 지역에서 베네치아 다음으로 큰 도시이자, 북부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다. 구시가지에는 로마의 유적들에 버금가는 중세 영주들이 만든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남아있고, 분홍빛이 도는 베로나의 석회암인 로쏘 지은 훌륭한 성들이 가득하다.